

WELCOME TO TASMANIA

태즈매니아 전문 여행사 <언더 다운 언더>



회사 소개

<언더 다운 언더> 여행사 (Under Down Under Tours)는 태즈매니아 전문 배낭여행 및 어드벤처 여행사로, 중/저가의 다채로운 여행상품을 선보입니다. 1996년 창립 이래,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태즈매니아를 역동적으로 경험하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현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태즈매니아의 숨은 보석을 선물 합니다

그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유명관광지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데 연연하는 여행이 아니라, 오감과 마음으로 태즈매니아의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과 추억을 선물 합니다.

들풀이 흐드러진 곳이 나타나면 잠시 멈추어 꽃 향기를 맡고, 차창 밖으로 거의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태즈매니아 호랑이'를 우연히 만나기라도 한다면, 주저 없이 시동을 끄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함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운전기사는 단순히 가이드 역할을 넘어, 오랫동안 떠나온 고향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처럼, 이 곳의 명소는 물론이고, 오래 머문 현지인이 아니고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진귀한 이곳 저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만 같은 푸르고 청명한 대 자연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몇 발자국 벗어나 뒤를 돌아보면 내가 앉았던 나무 기둥은, 손으로 훑어 내렸던 꽃 가지와 풀 무리는 다시금 말끔한 처녀지로 모습을 단장하고 새로운 친구를 준비를 합니다. 이 곳에서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자연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추천 5일 일정

(4박 5일/ 개인: AUD645, 단체: AUD 625)

첫 제날

태즈매니아의 한적한 중부 내륙을 지나 역사 유적들이 모여 있는 로스(Ross)로 향한다. 그 후 동 쪽의 콜 만(Coles Bay)을 지나면 와인 글라스 만(Wineglass Bay)으로 향하는 무리들을 만날 수 있다. 해변이 와인 잔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체노(Bicheno)에서 일정을 마친다. 비체노는 키가 작은 펭귄들의 서식지로, 매일 밤 펭귄 무리가 밤을 보내기 위해 찾아 든다. 비체노에서 1박(아침/점심 제공)



둘째 날

스카만데르(Scamander) 와 세인트 헬렌 산(St Helens)을 걸쳐 동쪽 편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진경에 폭 빠져본다. 파이어 만(Bay of Fires) 을 따라 사뿐 사뿐 걷다 보면 모든 감각이 하나씩 새롭게 되살아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리를 쭉 뻗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이 곳의 공기를 한껏 들이마셔본다. 블루 티어스(Blue Tiers)일대에 펼쳐진 열대우림을 따라 거닐다 희귀한 동식물을 만나는 행운을 얻기도 한다. 숲을 빠져 나오면 작은 마을 농장에 딸린 선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걸치며 단란한 저녁시간을 보낸다. 론세스톤에서 1박 (아침/점심 제공)

셋째 날

서쪽으로 발길을 돌려 크레이들(Cradle) 산으로 향한다.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국립 공원 안 곳곳에 펼쳐진 다양한 산책로를 따라 탐험을 시작한다. 도브(Dove) 강을 따라 여유로 히 산책하는 시간을 즐겨도 좋고, 마리온(Marion)의 전망대까지 숨이 턱 까지 차도록 순식간에 걸어 올라 보기도 한다. 주변에 수려한 경관을 지닌 산책로, 하이킹 코스 가 많으니 놓치지 말자. 크레이들 산에서 1박 (아침/점심 제공)

넷째 날

크레이들 산을 내려와 몬테주마(Montezuma) 폭포까지 이어지는 오랜 철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해안가에 이르게 된다. 헨티 사구(Henty Sand Dune)에 올라 보거나 바다를 향해 끝없이 펼쳐진 해안 길을 거닐어 본다. 남미에서부터 밀려온 대양의 파도가 부서지는 로어링 해협(Roaring Forties)의 장관에 압도 되고 말 것이다. 스트라한(Strahan)에서 1박 (아침/점심 제공)

다섯째 날

넬슨(Nelson) 폭포로 향하는 작은 산책로를 따라 남쪽 내륙으로 이동한다. 플랭클린(Franklin) 강 가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세인트 클레어(St Clair) 호수에 잠시 들른 후, 필드 네셔널 파크(Field NP) 산에서 여정을 마친다. 러셀(Russell)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을 잊지 말자. 키다리 나무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마치고, 그림 같은 더웬트(Derwent) 계곡을 따라 호바트(Hobart)로 돌아오는 동안 편안히 쉬면서 여정을 마무리 한다.

포함 사항

- 4박 숙소
- 전 일정 전문 가이드 동행
- 5회 점심식사, 4일 아침식사
- 국립공원 입장료
- 21인 이하의 적은 인원구성
- 호스텔/호텔 픽업 서비스
- 차/커피

출발 일정 및 시간

호바트에서 오전 7시 30분 출발- 호바트에서 오후 6시 종료
화요일/일요일 출발 상품 코드: TFF5H

론세스톤에서 오전 7시 30분 출발- 론세스톤에서 오후 6시 종료
목요일/토요일 출발 상품 코드: TFF5L

추가 출발 일

일/금 (12월 1일~3월 31일까지) 호바트 출발
화요일 (1월 1일~2월 28일) 론세스톤 출발

홈페이지: www.underdownunder.com.au

질문하기: info@underdownunder.com.au

